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8월 1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고단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며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강 종 희 -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저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탕자처럼 살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찢기고 상한 몸으로, 죄 많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경제 관념이 매우 부족하였고 이후로 평생을 직업다운 직업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혼자 힘으로 어린 네 남편을 키우느라 청소, 우유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옆집에 사는 은혜와진리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자며 간곡하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 전도자를 핍박했던 제가 그날은 순순히 그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세상 일에 지쳐 심히 곤고한 때였기에 저는 그 때 주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 내밀어 주신 손을 붙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예배 시간에 자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교회를 그만 둘까 하였는데, 집사님이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리면 곧 설교말씀에 감동이 되고 졸리지 않게 된다고 하여 꾸준히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집사님의 말대로 졸지 않게 되고 설교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한 성경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지 3개월이 지나서 기도성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세상만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설교를 듣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역자님과 옆의 집사님들이 함께 저를 위

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성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성령을 받은 제 눈에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전에 하찮게 보이던 들의 풀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제 귀에 마치 하나님께 합창 찬송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그동안 세파에 찌들어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가서 성전에 들어서면 저절로 제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쫓겨 들어왔습니다. 보잘것없던 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마다 오전에는 여성봉사연합회 봉사부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불신자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복음지를 건네며 전도할 때 거부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무척 흐뭇하고 힘이 나서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화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이 갈수록 굳세게 해주시고, 완고한 남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자녀가 주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친히 보살피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저의 가정이 안정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뻔했습니다. 구역장 세미나에서 전도상을 받는 분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주시는 전도상 한 번을 못 받아 보고 천국에 가야 하는가, 그러면 그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어느 날 옆집으로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몸이 너무 마르셔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했으나 할머니는 자기도 한때 교회에 나갔었다면서 전도를 거절하고, 또 몸이 아파서 지금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내 가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전도하면서 할머니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건강해진 할머니를 만나 “이제 같이 교회에 가야죠!” 했더니 돌아오는 주일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주일에 친구

세 분을 함께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지요. 그 후에도 여러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딸의 친구도 전도하여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역장 세미나에서 영예스러운 전도상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른 막대기만 못 한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 봉사하게 해주시더니, 나이 일흔 여덟이 된 저를 국내선 교연합회의 노방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도록 건강과 열심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이 국내선 교연합회에서 저처럼 구령을 위해 봉사하게 해주시고 며느리 또한 교역자가 되어 복음사역에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전도자라면 무조건 배척했던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오른쪽 팔과 다리가 떨리고 아파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병명도 확실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병세에 차도가 없자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려주신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주님, 눈먼 나를 눈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신명기 33:29)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저는 진실로 인생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지금 제 나이 여든 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긴지 어언 3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얼마가 되었든 저의 남은 생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뵈는 그것입니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합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9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 본문 : 마태복음 3:1-12
- 요절 :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 찬송 : 179장(새찬송가 185장), 201장(새찬송가 267장)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과, 그 후 타락한 인간의 삶에 생겨났던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최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 즉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보여주셨던 구원의 예시를 점점 구체화하여 두 번의 심판 중에서도 의인의 씨를 구원하여 남겨 두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듭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예언해 왔으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여년간은 아무런 목시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잠잠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시대의 선구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1.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의 출생부터 특이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그 아내 엘리사벳과의 사이에는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마침 사가라가 차레가 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주실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과, 저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눅 1:13-17).

사가라가 그 말을 믿지 못하자 그 별로 병어리가 되었고 그 후 천사의 말대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팔일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을 때, 엘리사벳이 친족중에 없는 ‘요한’이라 부르자 하고, 사가라가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눅 1:59-65).

이리하여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부친 사가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눅 1:76-78)고 예언하였습니다.

2.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생애와 사역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게 성장하였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답게 그는 세상 탐욕에 물들지 않고 검소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 “선지자보다도 나는 자”라고 하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마 11:9-11).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며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마 3:5,6)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 3:7-10)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지나친 자만심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준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마친 후 그는 그의 강직한 성품대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헤롯왕의 비행을 나무라다가 투옥된 후 헤로디아의 사주로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3.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요한

(1)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속죄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2)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며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예언하였습니다.

(3)그리스도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3:28)라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말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이 끝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며, 또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인산 : 인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